

# '구조적 비리·막강 권한' 사학재단

**채용·인사·징계권 등 학교운영 전권 행사  
학교재정 90% 가량 세금 충당...권리만 누려  
교육당국 전제 수단 적어 부정·부패에 취약  
사립학교법 개정해 공공성·투명성 강화해야**

광주 모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D고교에서 고3 수험생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인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를 수습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사학의 비율이 높은 광주지역에서 유독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56개 중·고등학교 중 사립학교 법인은 67개로 사학 점유율이 43%이며 44%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전체 고교 67곳 중 사립이 42곳으로 63%에 달한다.

국가 재정이 빈약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인 70~80년대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사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인재양성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뜻있는 지역 유지들이 사재를 털어 교육에 투자하면서 사학이 중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사학 운영권이 세습되고 이사장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각종 부정·부패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은 사립학교법에 막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은 교사 채용과 인사, 징계권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재단 이사장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교육당국이 겨우 재정지원 축소와 학급 수 감축 등 제약을 들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해당 사학이 학생들을 불모로 잡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하면 무용지물이다.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한만 누린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 중 2016년 기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인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곳 뿐이다.

교직원의 급여와 시설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급식비 등 학교운영 예산의 90% 가량을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이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자율성만을 고집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학재단의 이직은 정치권과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을 전국을 돌며 반대해 막아냈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사학재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사립학교들이 현재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기숙사에 모아놓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고3 시험지가 유출된 사립학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등급생이 유

출된 시험지로 공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립학교에 대한 학사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공범범죄는 완전범죄로 묻힐 수도 있었다.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교직원 이 비교적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사장과 재단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무탈할 수 있다는 점도 비리 발생과 비례하고 있다.

최근들어 광주지역 공립학교의 구조적인 비리가 적은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S였고 성적 조작, D였고 채용비리, S고 진학부장 특정 학생 성적 관리, J고 교장 학생 성추행 구속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재단들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자녀나 친인척을 '뽑아' 형식으로 서로 채용해 주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채용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위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학재단은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재단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둘러 수 있어 국·공립학교보다 부정·부패에 취약하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시들'해진 박 전 대통령의 인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화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파문이 커지며 교육당국이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한 후 9월 중순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만나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

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인권침해 사례가 은폐·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철저히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회와 여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완책을 11월 초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스

## 인도서 건물 2채 붕괴 최소 3명 사망

인도에서 신축 중이던 6층짜리 건물이 4층짜리 옆 건물을 덮치면서 같이 붕괴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밤 8시30분께 뉴델리에서 동쪽으로 40여km 떨어진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신축 중이던 6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기존 4층짜리 옆 건물을 덮치면서 건물 두 채가 함께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당시 신축 건물 내에서는 최소 1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무너진 기존 4층 건물의 거주 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에 한 두 가구만 거주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 반면, 현지 매체인 NDTV는 1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18가구가 거주했다면 건물 잔해에는 수십명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파견된 구조대원들은 현재까지 시신 3구를 수습했다.

건물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부실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부실공사에 따른 건물 붕괴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6~9월 사이 우기에 비가 내려 땅이 무너지면서 부실 시공된 건물이 붕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축 건물 소유주와 관계자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경찰과 소방 대원 등 구조대가 도착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구조대원들은 사고 현장 인근 곳곳이 건물 공사로 파헤쳐진데다 가우로 빗물이 차 있어 크레인 및 시추기 등 구조장비를 현장에 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 日 하네다공항, 폭염에 활주로 구멍 뚫려

일본에서 연일 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항 활주도에 구멍이 생겨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 지연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18일 NHK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에서 활주로 4개중 한 곳에서 20x30cm 크기에 깊이 10cm의 구멍이 발견됐다. 공항 측은 바로 해당 활주로를 4시간동안 폐쇄하고 보수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이 활주로를에서 이륙할 예정이었던 오카야마, 도야마행 항공편 등 10편이 결항됐으며, 100편은 지연운항됐다.

공항 측은 활주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이외에도 몇군데 더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17일 밤늦게까지 긴급보수작업에 들어가 18일 아침에 마쳤다.

공항 측은 연일 이어진 팽발더위로 아스팔트 속 수분이 팽창하면서 포장이 약해져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과 함께 도쿄 관문인 하네다 국제공항은 도쿄 도심까지 전철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접근성이 좋아 한국인을 비롯 해외 관광객 이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공항이다.

## 제9호 태풍 손편 중국 하이난성 강타

제9호 태풍 손편이 18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을 강타했다고 중앙기상국이 밝혔다.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태풍 손편은 이날 오전 4시50분께 하이난성 완닝(萬寧)시에 상륙했다.

태풍은 최대풍속 23m의 폭풍우와 함께 완닝 완칭(萬城)진 해안에 도착하고서 시속 40km 속도로 서진해 링수(陵水), 바오탕(保亭), 우즈산(五指山), 리둥(樂東) 등을 거쳐 낮 12개 하이난성을 벗어났다.

손편은 지난 1949년 이래 하이난도요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또한 40개 항만에 평균 5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중 완밍시 3개 항진에는 124~114mm가 쏟아졌다.

하이난성을 관통하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하천 건물 지붕과 설치물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생겼다.

태풍 내습에 따라 하이난성 관내의 고속철 등 철도는 12시까지 운행을 중단했다.

충저우 해협을 지나 하이난도요와 광둥성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전날 오후 4시부터 정지됐다.

하이난도요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 전부도 귀항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아직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규모로 보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